

영농 자재값 인상 농민들 '울상'

농산물 포장재와 농약, 비료 등 영농자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해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나주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농업용 면세유와 사료값에 이어 최근에는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농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각종 농산물 포장용 상자는 국제 원자재가 상승으로 최고 18%까지 인상됐다.

이 때문에 나주지역 과수 농가들의 원가 부담이 높아져 채산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또 농약 값도 크게 올랐으며 특히 제초제의 경우 20% 이상 폭등했다.

포장재·농약·비료값 30%까지 폭등

과수·축산 등 농촌경제 총체적 위기

비료 역시 농가 소비량이 많은 복합과 요소 비료 모두 30% 가까이 인상됐으며 기타 영농자재들도 인상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각종 영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적자를 우려해 아예 영농을 포기하는 농민들이 생겨나는 등 농촌 지역 경제가 총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주시 산포면에서 시설 재배를 하고 있는 정모(62)씨도 “기름값이 대폭 인상 돼 시설하우스 모종을 포기 했다”며 “농산물 가격은 제자리인 반면 농자재 값은 크게 인상 돼 농사를 그만두는 농민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선 농협 관계자는 “국제 곡물가격과 유가 인상분이 고스란히 영농자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정부의 농업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대책 마련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구례군, 경제 살리기 '구내식당 휴무제' 도입

구례군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 장보기 날'과 구내식당 휴무제를 운영한다.

군은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구례 5일장이 열리는 매달 23일을 구내식당 휴무일로 지정해 모든 직원들이 5일 시장과 주변 상가식당을 이용

토록 했다. 또 이 날을 '재래시장 장보기 날'로 지정하고 점심시간대를 이용해 가정에서 필요한 물품의 시장 구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군은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한 공무원을 선발해 인센티브도 제공키로 했다. /구례=김동호기자 dhkim@



화폐 전시회 인기 광산구청 1층 현관에서 지난 15일부터 화폐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오는 2월29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화폐전문가인 박용권씨가 30여년간 수집한 희귀화폐 600여점이 선 보이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청주공항 소음피해 승소했는데…

최근 청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항공 기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진행 중인 광주공항 인근 광산구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5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광주공항 인근 광산구 주민들은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판결에 한껏 고무돼 있다.

주민들은 특히 재판부가 소음 정도가 80웨클(WECPNL·국제 항공기 소음도 측정단위) 이상인 지역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이달 초 법원에 제출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광산구 도산동, 송정1동, 신흥동의 경우 소음 정도가 85웨클 이상인 지역에 사는 주민은 1만 5천여 명이며 80~85웨클인 곳의 주

민도 1만 5천 명이 넘는다.

판례에 따르면 소음 정도가 80~90웨클인 지역의 주민은 거주기간에 따라 월 3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다.

대책위 위원장인 국강현 광산구의회 의원은 “배상금 지급 범위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번 판결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소송과는 별개로 광주공항 내 군용 비행장의 이전을 촉

구하는 활동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2005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광산구 주민들 큰 기대

80웨클 이상 배상 '주목'

구하는 활동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은 항공기 이·착륙으로 인한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2005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올해 안에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일선 지자체가 시설 현

황양유업 나주 공장

5월 기동…공사 한창

황양유업 나주공장이 100여명 안팎의 직원체로 모집공고를 낸 데 이어 오는 5월 본격 가동을 목표로 내부 설비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이다.

황양유업은 물류와 생산, 기계설비, 전기계전, 에너지 등 6개 부문에 걸쳐 현장 관리사원을 채용한다.

자격기준은 ▲고졸 이상 학력 ▲

1976년 이후 출생자 ▲PC업무 수행 기본능력을 갖춰야 하며, 오는 30일 까지 우편으로 접수 받아 서류 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 일정이 통보된다.

남양유업 정의국 건설단장은 “현재 막바지 공사가 진행하고 있으며, 조만간 설비를 확장해 250명 규모의 지역 공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지역 민들의 성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역인력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력 채용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남양유업 나주공장은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일대 10만2천여㎡ 부지에 71억원을 투입, 1만5천500㎡의 우유 생산공장과 물류창고 등을 갖출 예정이다. 나주공장은 일반우유와 발효유, 별균우유를 생산하는 최첨단 설비를 통해 하루 200t의 원유를 가공 처리하게 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소비자 만족도 1위!!

금기 실증 험보기 이재 난타와 하난 풀수기

고성능 우군화 시스템 드릴 험보기 풀수기

제작자: 무등산업

전화: 042-371-7095

011-601-7701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 한방으로 치료

금기 실증 험보기 이재 난타와 하난 풀수기

고성능 우군화 시스템 드릴 험보기 풀수기

제작자: 무등산업

전화: 042-371-7095

011-601-7701